

# 잔잔히 흐르는 물결처럼... 차이콥스키 <사계(四季)> 중 '6월 뱃노래 Barcarolle'

임주빈 모니카\_KBS프로듀서, 심의위원

6월, 어느새 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나뭇잎들은 엽록소를 더해가며 한여름 절정을 향해 가겠지요? 질푸르다 못해 섬뜩한 느낌을 주는 진초록이 되기 전, 6월의 나뭇잎은 싱그럽고 건강하게만 보입니다. 그런가하면 햇살 가득 화단과 담장을 수놓은 노랑고 빨간 장미는 농익은 꽃 향기를 부지런히 바람에 실어 보내고 있습니다. 탐스러운 수국도 6월의 호사로움이죠.

6월의 자연으로 인해 한결 부드러워진 우리의 시선을 이제 나무에서 물가로 옮겨봅니다. 차갑지 않은 물에 발을 담그면 찰랑찰랑... 잔잔하던 물소리는 어느새 음악이 되어 귓가에 흐릅니다. 황홀한 그 선율은 바로 차이콥스키의 <6월 뱃노래>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  
(Pyotr Ilyich Tchaikovsky)  
<사계(四季) Les Saisons>  
for piano, Op. 37b  
<6월 뱃노래 June ("Barcarolle")>  
Andante cantabile in G minor  
**니콜라이 루간스키**  
(Nikolai Lugansky), piano, 2016



차이콥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러시아)는 우리에게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 발레 음악 작곡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교향곡 6번 '비창'은 클래식 명곡 감상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멋진 곡들입니다.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는 학창 시절 음악 학교에서 서양 음악을 배웠고, 유럽의 음악 양식으로 작곡했지만, 그의 음악엔 유럽 음악가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뭔가 다른 감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멜랑콜리한 러시아 정서입니다. 차이콥스키 자체가 예민하고 여린 음악가여서일까요? 울적한 느낌이 묘하게 버무려진 그의 음악은 우리 마음을 섬세하게 어루만지고 위로해줍니다. 이런 정서가 한국인의 정서와 잘 맞아떨어지는지, 그의 작품 중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들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곡들은 물론이고, 현악4중주곡 1번의 '안단테 칸타빌레' 악장이나 '현을 위한 세레나데', 교향곡 4번과 5번도 사랑받는 곡입니다.